

순천시, 교육이 미래... '에듀피아 순천' 완성에 총력

**생태·문화 연계 교육과정 운영
통합돌봄 위한 유보통합 구축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
“지역 특색 교육으로 소멸 대응”**

순천시가 미래 인재 양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특화산업인 생태·문화 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지역연계통합돌봄, 순천형 창의인재 양성, 정주형 특화교육 등 3가지다.

먼저 순천시는 지역연계 통합돌봄을 위해 유보통합(보육·교육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을 반영한 2030 교실을 선도할 유지원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생태환경 교육과 문화예술 감성교육에 힘쓸 예정이

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돌봄 교육을 통해 주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순천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IB 프로그램을 초·중·고 각 1개교에 도입해 ‘관심-후보-인증’ 학교의 단계적 지원을 도입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IB 프로그램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인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

ate·IB)에서 3살부터 19살까지 학생들에게 3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실현과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중시한다.

시는 문화콘텐츠 및 생태 분야와 연계한 지역 특색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정주형 특화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교육발전 특구 및

교육자치를 통해 지방도시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정주하고 싶은 도시 순천을 만들 것”이라며 “생태와 문화로 정주하는 ‘에듀피아 순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급,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설계 컨설팅,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19일 야외도서관 ‘책을 그린 정원’ 운영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서

순천시는 오는 19일 오천그린광장 동천변에 위치한 그린아일랜드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문화공연을 즐기는 야외도서관 ‘책을 그린(Green) 정원’ 행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탁 트인 정원에서 문화와 쉼을 즐기는 새로운 독서 환경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그린아일랜드의 푸른 잔디 위에 1300권 도서와 야외서가, 빈백을 중심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야외서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과 함께 화제의 신간, 시집·에세이 등 다채로운 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원시터원북 릴레이 필사, 읽는 재미를 더하는 독서템 체험, E-BOOK 리더기 체험 등은 물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컬러링, 야외놀이터, 북크닉 용품 대여 등 남녀노소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이와 함께 오전 11시부터는 애니메이션·클래식 연주를 시작으로 버블·마술쇼 등 총 4차례의 공연이 관객들 앞에 펼쳐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린아일랜드는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녹색 쉼터이자 문화 공간”이라며 “따뜻한 봄날, 책과 정원 문화가 어우러진 야외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고 독서를 한층 더 가까이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원도심 ‘로컬 창업 지원사업’ 2기 모집

순천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 창업 지원사업’ 창업 2기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팀)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천 원도심만의 특색 있는 외식 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 및 신중년층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1기 참여자들의 성과와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2기 모집이 이어지게 됐다.

모집 대상은 순천시 별미길 일원 공실 활용 외식업 창업 희망자로, 개인은 물론 2인 이상의 팀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최종 창업 지원자(팀)로 선정되면 △창

업지원금 최대 3000만원(자부담 50% 별도) △임대료 최대 50만원씩 6개월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시제품 개발 컨설팅 및 시식회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업 희망자는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www.suncheonmr.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070-4109-9908) 또는 운영사무국(1544-8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동천변 버들마편초 식재... 지속 개화 경관 조성

자체 육묘·식재... 예산 절감 기대

순천시는 그린아일랜드-동천변 사면에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보랏빛 꽃을 피우는 버들마편초를 식재해 수변 경관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직영 재배 및 식재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조감도)



버들마편초는 꽃대를 잘라주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우는 다년생 초화로, 긴 줄기 끝에 이삭 모양의 화려한 보라색 꽃이 특징이다. 내한성, 내습성, 병해충 등에 강해 관리가 용이하며 수변 생태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식물이다.

시는 직영 작업단이 파종부터 육묘, 생육 관리, 식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해 예산 절감은 물론, 작업단의 기술력 향상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차 파종을 통해 약 6만본의 버들마편초를 재배했으며, 이를 동천변과 오천그린광장에 식재할 예정이다. 또 2차 파종으로 8만본의 모종을 추가 재배 중에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풍덕동의 한 경로당에서 지난 8일 ‘65+건강라이프 활기찬 노후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풍덕동 “배움의 열기, 활기찬 노후생활”

노후생활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 풍덕동은 최근 4개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65+건강라이프 활기찬 노후생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경로당에서 시범운영 후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노후생활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거점 경로당과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체조,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육, 체험 활동,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디지털 교육의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무인 상점 및 카페 등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키오스크 조작법까지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순천=배서준 기자

‘2025 순천세계유산축전’ SNS 서포터즈 모집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오는 9월12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최되는 ‘2025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의 성공적인 사전 홍보를 위해 ‘SNS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SNS 서포터즈는 순천의 대표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갯벌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다

양한 세대와의 소통으로 축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전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SNS(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활발히 운영하고 세계유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순천 선암사, 순천갯벌, 순천만습지 등 일대를 취재하며 축전과 관

련된 콘텐츠를 개인 SNS채널에 제작·게시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는 순천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28일 발표된다.

활동 내용에는 선암사·순천갯벌을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 세계유산축전 관련 행사 참여 후기 작성, 미공개 명소 소개, 개막식 참석 등이 포함된다.

서포터즈 활동에 따라 매월 최대 15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서포터즈 유니폼과 위촉 증서도 함께 제공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

순천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순천’을 목표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며, 여

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양성평등마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심 안전 모니터링,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성별, 연령,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rhgtjr11@korea.kr)로 제출하거나, 시청 가족복지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